

율곡의 경제론과 오늘의 한국

— 李栗谷의 經世思想 —

趙 淳

(前 서울대 교수)

李栗谷의 시대에는 현대에 있어서와 같이 정치와 경제(및 사회·윤리)에 관한 사상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을 보호하여 국기를 다지고 백성을 교화하여 대동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었으므로 정치와 경제는 일체불가분인 것으로 여겨졌었다. 따라서 栗谷의 경제사상을 논할 때에는, 순전한 경제(오늘의 의미에 있어서의)에 관한 그의 인식이나 대안, 이를테면 조세나 정부지출 또는 행정이나 국방등에 관한 그의 구체적 제안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넓게 그의 모든 言行을 실천하는 「경세」사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栗谷의 경제사상의 개략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I

栗谷의 경제의 이상은 한마디로 三大(夏殷周)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있었다. 이것은 孔子이래 유교의 기본이념이며, 따라서 모든 유학자에 공통된 이념이기 때문에 栗谷에만 독특한 사상은 아니다. 三代의 치세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君王은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어야 하고, 그런 君王을 보필하는 사람은 周公召公과 같은 「大臣」이어야 한다.

이러한 군왕과 대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백성이 화목동락하는 대동사회로서 이것이 바로 栗谷이 그리는 이상사회였다. 이것은 유교전래의 사상이며, 栗谷의 독특한 사상은 아니었다.

栗谷이 살던 16세기중·말기의 시대는 朝鮮왕조 건국 이래 오랜 昇平의 타성으로, 행정은 문란하고, 관민의 기강은 해이하고, 權姦의 농간으로 士禍가 繼起하여 사기가沮喪하고, 민생이 극도로 피폐하고 국방이 虛疏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君臣은 다 같이 悠口泛口 무사안일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 나라는 土崩瓦海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었다.

당시의 朝鮮은 栗谷의 이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는 君王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特段의 결심으로 과감한 경장을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망국의 화를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고, 39세 때에 宣祖께 올린 「萬言封事」에는 十年 이내에 반드시 禍亂이 일어나리라고 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상황을 맞아, 栗谷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많은 개혁(경장) 방안을 진언하는 동시에, 유교의 「修己治人」의 기본에 따라, 우선 군왕이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뜻을 세워 노력하고 나약한 기품을 물리치고 용기를 분발하여 적폐를 쇠신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빠른 시일내(三

年以内)에 치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았다. 누란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 「霸道」 아닌 「王道」를 주창한 그의 생각은 매우 迂闊한 것으로 비추어 지기 쉽고, 이 점이 같은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秦나라의 패도의 기초를 마련한 商鞅을 칭찬한 王安石의 생각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시폐규제에 관한 栗谷의 구체적 진언은 아주 참신하고 시의적절한, 점진도 급진도 아닌, 중용의 경륜을 담은 것이었다. 그는 수없이 여러 번 행정체신을 위한 진언을 하였는데 연산군 중년 이래의 부합리한 폭검의 수단이었던 貢案을 개혁하고, 병역이나 賦役의 의무를 현실화 내지 면제하여 민생을 救恤할 것을 제창하였으며, 조정을 비롯하여 나라의 기강을 잡을 것을 누누히 주장하였다.

정치(및 경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賢能을 등용하여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만년에는 학교의 제도를 바로 세우고, 鄉約의 제도를 확립하여 민간의 교화를 이룩하는데 힘썼다. 특히 과거를 거치지 않은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서얼을 관계에 등용하고 무재 있는 公私賤을 贖良하여야 한다고 제창했으며, 경연에서 養兵十萬(都城二萬, 各道一萬)을 진언했다. 일반적으로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경장(개혁)을 주장하여, 적폐를 匡救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옛날의 제도를 좋을 때에는 지켜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좋은 제도도 폐단을 나타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그 때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II

栗谷의 시대는 오늘과는 다르지만, 그의 기본사상은 오늘의 우리에게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준다.

첫째, 오늘에 있어서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의 연관성이 적어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설사 政治가 잘못되어 있어도 경제는 건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피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도 잘못되고, 그 逆도 또한 같다.

둘째, 정치를 잘 하기 위하여는 정치하는 사람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栗谷의 사상-유교의 기본사상-은 오늘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타당한 사상이다. 물론 시대에 따라 정치의 행태는 달라진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시대이고 민주주의시대의 윤리는 栗谷의 시대의 윤리와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栗谷의 민본사상은 민주주의사상과 상통하는 점이 많으며, 오늘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항상 근본을 생각하는 栗谷의 기본관념은 원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치닫기 쉬운 오늘의 정치에 있어서도 많은 교훈을 준다. 「修己治人」은 오늘에 있어서는 대단히 迂闊한 것처럼 들리기 쉬우나, 그것은 부패한 衰世의 인식일뿐이고, 나라가 진실로 잘되기 위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당 수준의 수양을 갖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세째, 「更張」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한 栗谷의 경세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항상 경청하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栗谷의 진언이 당시의 정치권에 의해 그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놀랍기만 하다. 壬辰倭亂 丙子胡亂을 겪으면서도, 한번도 경장다운 경장을 하지 못한 栗谷이 개탄한 「悠悠泛泛」의 타성이 결국 망국에 연결된 이 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역사는 또 「更張」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용기와 지혜 및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끝으로, 『栗谷全書』를 읽고 우리의 歷史 그 文化와 정신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한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오늘의 의미에 있어서의)도 아니고 국방도 아니며, 그 국민의 「知力」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국의 「知力」이란 (1)그나라가 栗谷과 같은 경륜있는 지성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2)그나라가 그 지성의 제창을 이해하고 합심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는自古로 栗谷과 같은 지성의 산출이 너무나 적었다. 설사 간헐적으로 한줄기 지성의 광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바다와 같은 어둠을 헤칠 수는 없었던 것이다. ☘